

## 다시 찾아온 벤처 전성기, 과거를 거울삼아 밝은 미래를 열자

글 \_ 박성신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

21세기 세계경제는 바야흐로 기술·지식집약형 경제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일본과 중국 사이의 'A Nut in the Cracker'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지속적인 기술경쟁력 제고와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이라는 데 의견을 달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벤처산업의 중요성이 있다. 한국경제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육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주도형의 고부가가치 지식·첨단기술 기반의 벤처·신성장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것이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유연한 고용구조로 특징되는 벤처기업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 및 고용창출을 통해 지난 97년의 경제위기 극복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해온 바 있다.

그러나 돌아해보면 급속한 벤처산업 성장의 뒤편에는 일부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 얼마 전까지 벤처기업 전체가 시장과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이들로부터 외면당해온 사실은 우리 벤처업계가 향후 두고두고 곱씹어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다행히 을유년 새해 들어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오랜만에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다. 연초부터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의 청신호가 나타나고 코스닥지수도 연초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곳곳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벤처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벤처업계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 징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과거 정책의 반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건전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금번 대책을 통해 벤처환경이 급속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환경의 긍정적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벤처인 모두가 뛰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일부 뒤편하지 못했던 모습을 거울삼아 벤처인 스스로가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일부 벤처기업의 과오가 벤처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던 과거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간 벤처인들은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우리 경제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 건전한 투자문화의 정착은 물론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친화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업이 정신을 살려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나 기술개발에도 적극 노력하여 벤처 본연의 모습을 찾아주길 바라며 이것이 곧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기회에 벤처생태계의 건전한 조성을 위해 벤처업계의 자정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전 벤처인이 새로이 태어나야 할 적기인 것이다.

이미 벤처산업에 새로운 환경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더불어 금년에는 벤처업계가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며 제2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